



미 증시, 브레이너드의 매파적인 발언 등으로 약세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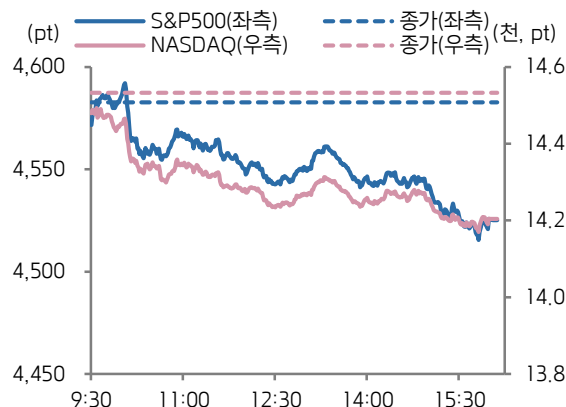
5 일 (화) 미국 증시는 6 일 (수) FOMC 의사록 공개 앞두고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져 있는 가운데, 브레이너스 연준 이사의 매파적인 발언을 계기로 매도압력이 커지면서 1%대 하락 마감. 서방국가들의 대-러시아 추가 제재 발표, ISM 서비스업 PMI 의 높아진 물가 지수 등 부담 요인들로 0.2% 하락 출발한 S&P500 는 브레이너드의 가파른 QT 지지 발언을 계기로 성장주 중심 매물이 출회되며 낙폭 확대. 이날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세계은행의 아시아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상해의 락다운 연장 등이 있었음(다우 -0.8%, S&P500 -1.26%, 나스닥 -2.26%, 러셀 2000 -2.36%).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는 대차대조표 축소는 이르면 5 월부터 과거보다 빠른 속도(at a rapid pace)로 진행될 거라고 언급했고, 이에 주식시장은 연준의 긴축 정책 가속화에 대한 우려감이 재부각됨. 브레이너드 이사의 발언 여파로 미국채 2년물 금리는 9bp(2.51%), 10년물 금리는 14bp(2.55%) 급등. 이날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도 50bp 금리 인상에 열려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매파적인 발언을 함.

서방국가들의 러시아의 전쟁범죄 의혹에 대한 추가제재 관련 소식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은 VTB 등 일부 러시아 대형 은행들의 해외 자산들을 동결하는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 EU 는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의회에 제안하기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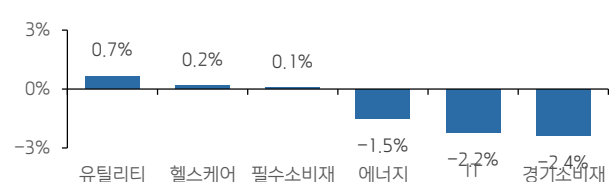
업종별로 살펴보면 유틸리티(+0.7%), 헬스케어(+0.2%), 필수소비재(+0.1%) 등이 상승한 반면, 경기소비재(-2.4%), IT(-2.2%), 에너지(-1.5%)는 하락. 금융(-0.8%)은 미국 금리 급등에 불구하고 하락. 반도체 지수는 4.5% 하락, 다우 운송 지수는 2.8% 하락. 종목별로 애플(-1.9%), 테슬라(-4.7%), 엔비디아(-5.2%) 등 전 거래일 트위터 효과로 급등한 기술주들은 하락. 전일 27% 급등한 트위터(+2.0%)는 머스크가 트위터 이사로 합류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이어갔지만, 메타(-0.9%), 스냅(-2.8%) 등은 하락. 랄프로렌(-3.9%)은 웰스파고의 투자의견 하향조정 여파로 하락, 스타벅스는(-4.5%)는 전일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중단 소식, 웨드부시의 투자의견 하향조정 등으로 연일 하락. 한편 카니발(+2.4%)은 최근 일주일 승객수가 기업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상승.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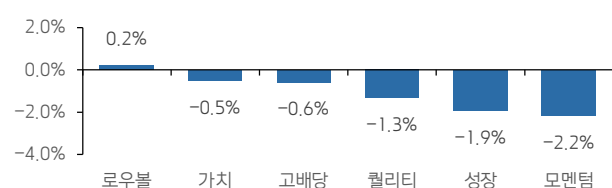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을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525.12	-1.26%	USD/KRW	1,212.69	-0.13%
NASDAQ	14,204.17	-2.26%	달러 지수	99.48	+0.49%
다우	34,641.18	-0.8%	EUR/USD	1.09	+0.01%
VIX	21.03	+13.25%	USD/CNH	6.38	+0.02%
러셀 2000	2,046.04	-2.36%	USD/JPY	123.57	-0.02%
필라. 반도체	3,269.82	-4.53%	채권시장		
다우 운송	15,065.50	-2.81%	국고채 3년	2.890	+7.5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075	+3.8bp
Eurostoxx50	3,917.85	-0.84%	미국 국채 2년	2.514	+9.2bp
MSCI 전세계 지수	718.79	+0.86%	미국 국채 10년	2.547	+15.2bp
MSCI DM 지수	3,081.38	+0.8%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161.65	+1.38%	WTI	101.96	-1.28%
MSCI 한국 ETF	70.86	-1.62%	금	1927.5	-0.3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62%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1.84%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59%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19.9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내일 새벽 공개될 3월 FOMC 의사록을 둘러싼 경계심리의 장중 확산 가능성
2. 매크로 불확실성이 재차 높아졌음에도 지수가 아닌 개별 종목장 지속 여부
3. 원/달러 환율 재상승이 국내 외국인 대형주 수급에 미치는 영향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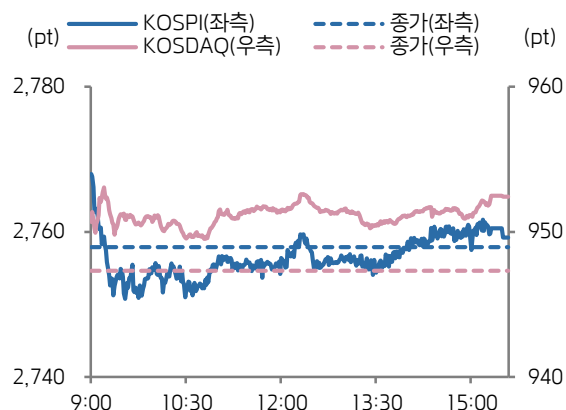
지난 3월 FOMC 이후 연준의 매파 성향이 강화됐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였으나, 5일 비둘기파 성향인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다는 점에 시장은 부담을 느낀 모습. 5월 혹은 6월 중 한번에 50bp 금리인상은 이미 연준 내에서 다수의견이 됐으며 시장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맞음. 하지만 양적긴축(QT)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가 입수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브레이너드의 “2017~2019년에 비해 빠른 속도로 대차대조표 축소할 것”이라는 발언이 연준 정책 불확실성을 재차 유발한 것으로 판단.

일단 6일(한국시간 7일 새벽) 공개 예정인 3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야 양적긴축 논의가 연준 내부에서 어느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 해당 의사록에서 1) (브레이너드 이사가 이야기한대로) 만기도래 채투자하지 않는 채권의 규모 대폭 확대, 혹은 2) 만기 여부 상관없이 10년물 등 보유채권 매각과 같은 매파적인 논의가 거론됐을 경우에는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 나스닥 급락, 3월 FOMC 의사록 경계심리 등으로 정체된 추가흐름을 보일 전망.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에 비해 3월 중순 이후 주가 복원력이 크지 않았던 만큼, 금일에도 전반적인 지수 하방 압력은 제한된 채 인플레이, 금리, 중국 등 개별 이슈에 따른 차별화된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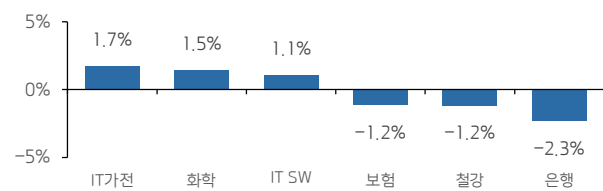
현재 증시 주변을 둘러보면, 연준의 긴축 우려, 경기 침체, 서방국가들의 대러시아 추가 제재, 중국 상해 봉쇄조치 장기화 및 그에 따른 중국발 물류대란 악화 등 그 환경이 표면상으로 결코 우호적인이지 않은 것은 사실. 다만, 상기 언급한 악재들은 연초 이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던 재료였던 만큼, 시장에도 1분기 중에 이를 상당부분 소화해왔던 측면도 있었다고 판단. 이와 관련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 변동성 지수의 대응치로 활용되는 VIX 지수의 4월물과 5월물 선물 간 스프레드에 주목해볼 필요. 지난 2월 중순~3월 중순까지는 5월물 가격보다 4월물 가격이 높아지는 백워데이션 현상이 출현하는 등 증시 변동성 자체가 비정상적이었음. 그러나 5일 데이터 기준으로 지난 3월 말 이후 현재까지 4월물보다 5월물 가격이 다시 높아진 콘탱코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신규 악재가 출현하지 않는 이상 가격 조정 압력은 1분기에 비해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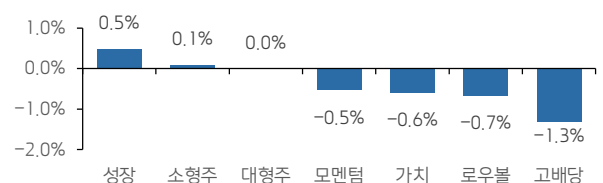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